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결정 이후에도 정부는 근로자·협력업체 지원 지속

-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 개최
-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 이행상황 등 점검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9.3일(목) 15:30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해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영향과 그간의 근로자·협력업체 지원실적을 점검하였다.

* 참석 : 재경부(차관보 주재), 노동부, 중기부, 산업부, 금융위, 금감원

참석자들은 회생계획 인가가 경영정상화의 출발점인 만큼, 향후 회생계획의 충실한 이행과 안정적인 영업기반 확보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책임있는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향후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이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근로자·협력업체의 생계·경영 안정 등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근본적인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25.3.4일) 후 관계기관들과 함께 소관분야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근로자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왔으며,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26.7.3일) 이후에는 지원을 보다 확대하여 실시해오고 있다.

근로자 대상으로는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생계비 용자 등을 지급하고, 저소득 재직 근로자 대상으로도 생활안정자금 용자를 제공해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실직 발생 시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이후('25.3.4~'26.9.1일) 실업급여·대지급금 27,739건 410억원, 용자금(임금체불 생계비용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등) 9,110건 420억원 등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소진공·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원과
신보·기보 특례보증 3,500억원 등 총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은행권 협조 하에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신규 긴급자금
대출(최대 5억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이후('25.3.4~'26.9.1일) 소진공·중진공 긴급경영
안정자금 321건 171억원, 신보·기보 보증 104건 662억원을 협력업체에
지원했고, 은행권에서도 만기연장·상환유예 8,540건 5.6조원 및 신규긴급
자금 대출 145건 436억원을 제공했다(은행권 지원은 '25.3.4~'26.8.28일 기준).

근로자·협력업체 지원 실적('25.3.4~'26.9.1일)

근로자		임금채불 대지급금	실업급여	임금채불 생계비용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취업지원	심리안정 취업역량 강화
	지원건수(건)	54	27,685	8,979	131	6,055 ¹⁾	444 ¹⁾
	지원액(억원)	4	406	413	7		
협력업체		긴급경영안정자금		은행권 지원 ²⁾		보증지원 ³⁾	
		소진공	중진공	만기연장상환유예	신규 대출	신보	기보
	지원건수(건)	304	17	8,540	145	96	8
	지원액(억원)	114	57	56,301	436	635	27

1) '25.4월말~'26.6월말 기준 / 2) '25.3.4~'26.8.28일 기준 / 3) 회생절차 폐지('26.7.3일) 이후 신규 지원 개시

<총괄>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박언영 (044-215-2740)
	자금시장분석과	담당자	사무관	이영훈 (emeak@korea.kr)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지영철 (044-202-7404)
	지역산업고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서현 (snhy11@korea.kr)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안원호 (044-204-7821)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길영 (kudos@korea.kr)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조근상 (044-203-4380)
	유통물류과	담당자	사무관	이정훈 (cyber_lee@korea.kr)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박정원 (02-2100-2920)
	기업구조개선과	담당자	사무관	이수민 (soolee22@korea.kr)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이성희 (02-3145-8370)
	신용감독국	담당자	팀 장	석재승 (corest1@fss.or.kr)